

告子章 맹자 고자장에 숨겨진 구도의 비밀

‘생이학이부지고(生而學而不知故)로 곤이지지선운(困而知之仙運)일세’ 격양유록 승운론(勝運論)에 나오는 글이다. ‘나면서 알 수도 없고 글공부해서도 깨달을 수 없는 고로 정도령은 몸과 마음이 피곤한 가운데서 고통스런 연단을 거쳐 마침내 대도통을 얻어 불사영생의 세계를 열어간다.’는 뜻이다. 안다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소위 도통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큰 임무〉란 무엇인가?

구한말의 선각자 강증산 선생 왈 “맹자야, 이 역적놈아!” 하고 꾸짖고 “마음속에 임금과 신하의 의미가 있다면 임금을 임금 같이 얹게 볼 수가 있겠느냐?” 하였는데(도전4:46). 그러면서도 사서삼경(四書三經)중의 하나인 맹자(孟子) 가운데서 “고자장(告子章)을 잘 보아두면 이 책에서는 더 볼 것이 없다.”고 한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자.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여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굽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서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인내심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나(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勞其心志하고 苦其筋骨하고 餓其體膚하고 窮乏其行하여 拂亂其所爲하니 是故는 動心忍性하여 增益其所不能이나니라.)”

강증산 선생이 화천(化天)하기 나흘 전에 “이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고 하였는데 마지막에 오는 사람을 대두목이라 한바 바로 그 대두목이 고난 속에 연단을 거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같이 대두목에게는 〈하늘이 내리는 고난의 깊은 섭리〉가 있다.

맹자의 고자장에서 나오는 〈하늘로부터 받은 큰 임무〉란 무엇인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구천지)을 죽음 없는 세상(선천지)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천지를 개벽하는 임무를 말한다. 대두목(정도령)은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다. 또한 무서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함이나 도를 닦는 자는 모름지기 인내심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육도삼략(六韜三略)에 나와 있듯이 그 시대와 역사의 성숙 정도에 따라 하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육도삼략이란 삼역대경에서 나온대로 1략 1도에 복희씨, 2도가 문왕이 맡았고 이른바 선천이다. 2략 3도가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 4도



정음 보천교(普天敎)의 십일전(十一殿)을 옮겨지은 조계사 대웅전에 이자삼점(伊字三點) (..)

가 화운(火雲) 강증산 선생이 말았으니 후천이라고 하였고 3략에 5도 목운(木漣, 6도 금운(金漣)으로 중전을 맡았다.

3략의 목운과 금운이 강증산 선생이 말한 두 사람이다. 중천의 천지 공사가 끝나면 죽음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목운을 목도(木兔목도=나무토끼), 금운(金漣)을 금구(金鳩=금비둘기)라 하며 금구(金鳩) 속에 목도가 합쳐져 있으니 금목합운 동서합운이다. 이것을 격양유록에서는 구도상합진인(鳩兔相合眞人)이라 하며 정도령, 정립도사, 심승지, 심오진주, 이간자, 미륵불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자삼점(伊字三點 = ..)은 감로해인을 들고오는 미륵삼존불의 출현 암호

보다 엄밀히 말하면 목운과 금운 사이에 여인 한 분이 있는데 여인은 세상에 나서서 천지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두 사람을 말한다. 강증산 선생의 제자인 문공신이 ‘우리 일은 삼대(三代)밖에 없다.’(도전10:149)라고 말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는 어떤 집안의 혈통으로 삼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륵 삼존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세 분이이다.

일즉삼(一即三)이요 삼즉일(三即一)이라. 삼위일체가 되어야 완성이 되고 사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소탕하는 권능을 가지는 감로 해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자삼점(伊字三點=..)인데 미륵부처님 출현의 비밀을 압축한 말이다. 절 건물의 측면에 이자삼점을 그려 놓은 것이 바로 미륵 삼존불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불법승 삼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륵불은 감로수를 들고나와 죽음 없는 극락세계를 만들게 되어 있다. 과거의 성인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도 죽음의 신인 마귀를 소탕할 수 있는 감로해인(甘露海印)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없는 천당 극락을 열지 못했던

것이다. 강증산 선생은 “죽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도전5:411).”라고 하였는데, 목은 하늘이 마귀이며 사람 죽이는 마귀를 소탕하는 것이 감로해인인 것이다. 그 마귀가 인간 속의 ‘나(我)’라는 자리에 임금처럼 앉아 나라는 의식이 되어 인간의 생명을 결국 삼켜버리는 것이다.

강증산 선생이 말한 대두목이란?

대두목이란 용어는 증산 선생의 생전이나 지금도 세상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대두목이 바로 정도령이다. 정도령의 정(鄭)자를 파자하면 ‘추(酋=우두머리, 두목) + 대(大) + 음(邑)’인데 여기서 추(酋)와 대(大)를 합하면 대두목이 되고 음(邑)은 고을이며 도읍이란 말이다. 격양유록에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여 지상 선국을 건설한다. 계룡은 비산명(非山名) 즉 산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정도령이 지상에 신선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신선이란 불로불사의 존재가 아닌가? 정도령이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맹자의 고자장에서 나오는 〈하늘로부터 받은 큰 임무〉요, 대두목의 임무인 것이다. 그것이 천지개벽이다. 이 대두목(정도령)에게 붙어있는 도수가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인 것이다. 이윤의 도수는 ‘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오십이 사십구년지비)’ 즉 대두목(정도령)은 나이 오십에 대도통을 하게 되어 있다. 문왕의 도수는 칠년옥고에 있으므로 대두목(정도령)은 칠년옥고를 치르게 되어있다. 죽어 천당을 주장하는 마귀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살아 천당을 주장하는 대두목(정도령)을 갖은 꾀박과 음해를 가하니 이로 인하여 칠년옥고를 치르게 됨을 말한다.

강증산 선생은 일찍이 신대장(神大將)으로 불렀던 제자 박공우에게 “죽어서 잘 되겠느냐? 살아서 잘 되겠느냐?”라고 물었

을 때, “살아서 잘 되겠나이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죽어 천당이 아니라 살아 천당가는 도수를 펼쳐 줌을 말한다. 육도삼략 3략의 5도 목운부터 살아 천당가는 도수를 시작하여 6도 금운에 그 천지공사를 끝마치게 되어 있다.

살아 천당에 가려면 사망의 신인 마귀를 죽여야 한다.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격양유록에서는 정도령이라고 말하며 ‘궁을심승, ‘궁궁을을, ‘이재전전, ‘소울음소리’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모두 심(心)을 표현한 것이요 심은 하나님요 승(勝)은 마귀를 이겼다는 뜻이니,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소울음 소리(우명성) 나는 곳을 찾아라

여기서 우명성(牛鳴聲=소울음소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천마지우(天馬地牛)라고 하늘에 있을 때는 말이요 땅으로 내려오면 소가 되는데, ‘음메~’ 하면서 젓 달라고 우는 소리가 우명성이 되고 암마 소의 네 뒷발을 뺀아 먹는데 암마 소의 젓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도(道)의 젓 일진대(道乳充腸) 바로 ‘감로해인, 생명과 일, 이슬성신, 감로수, 감추었던 만나가 되는 것이다. 암마 소도 ‘음메~’라고 하면서 ‘오냐! 오냐! 어서 와서 나의 젓을 먹고 영생하여라.’라는 뜻으로 암마 소도 ‘음메~’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소울음소리(우명성) 나는 곳을 찾아라. 그곳이 불사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다.’가 되는 것이다.

또한 격양유록의 여러 곳에서 우복동(牛腹洞)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사영생의 신선이 산다는 마을을 뜻하지만 소우(牛)자의 배(腹)에 심(心)이 있으니까 곧 삼위일체 하나님 정도령을 찾아가라는 말이며, 이는 ‘소울음 소리(우명성) 나는 곳을 찾아라’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재전전, 궁궁을을, 심승, 낙반사유(落盤四乳) 등도 다 심(心) 즉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의미이다. 마귀는 ‘나라는 자리에 임금처럼 앉아서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마귀가 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요 탈레마인 바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는 대두목(정도령)을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젓인 감로해인을 받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선 지금 천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성경신(誠敬信) 석자로 닦으며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사람(진인=정도령)을 만나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낮추고 음덕을 쌓아 대두목 정도령을 만나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얇게 파면 죽나니 깊이 깊이 파야 하느니라.* 고서연구가 박명학 선생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6> “육천년 만에 배출한 승리자 구세주”

마귀가 육천 년간 하나님을 죽여 왔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인생들은 백 년도 못 살고 죽지만 하나님은 육천 년 동안 그 자손들을 통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천 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숙원 문제인 승리자 구세주를 이 땅 위에

배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마귀들을 놀라게 한 일로써 신의 세계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승리자 구세주는 인류의 스승이요, 인류의 어머니입니다. 승리자 구세주는 온 세상의 마귀를 여지없이 소멸하고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의 영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7>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는 남자가 여자를 의식할 수 없으며, 여자가 남자를 의식할 수도 없고, 남자나 여자나 내 몸처럼 의식을 하고, 너가 나요, 내가 너가 되는 의식구조로 바뀌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다. 나라는 의식은 분열의 영이요, 사망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므로 내가 살아 있으면 생

각이 갈라지게 되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라는 것을 죽이려면 나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는 것이다. 원래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이었으므로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오장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심장)

생사의 경계를 알리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심장, 심장은 혈관을 통해 혈액을 몸의 각 부분으로 보내는 펌프 구실을 하는 기관이며, 영통이라 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자기의 주먹만 한 크기이며, 적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무게는 성인의 경우 250~270g입니다. 심장의 내부는 위쪽에 좌심방과 우심방, 아래쪽에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습니다. 좌심방·우심방과 좌심실·우심실 각각의 사이에는 막이 있는데, 이것을 판막이라고 하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합니다.

이 운동량 정신 상태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릅니다. 남자 어른이 70년 안팎, 여자는 75년 안팎이고, 어린이는 80~90년, 갓난아이는 120~140년입니다. 첫째, 심장(心)은 오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기로서 혈액(血脈)과 신명(神明)을 주관합니다. 혈액을 주관하여 심(心)이 동력학적 기능으로서 혈액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심(心)이 신명을 주관한다고 할 때의 ‘神明’이란 정신 활동, 의식 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양방(洋方)과는 달리 건망증이나 불면증, 정신 장애 등은 심(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합니다. 둘째, 띠, 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心)이 피를 주관하는데 한의학에 선 맑은 피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면 띠가 적게 나오고 띠를 많이 흘리면 피가 허해진다고 합니다. 심(心)은 혀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심(心)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다섯 가지 맛을 다 알 수 있고, 말할 때 발음하는 액은 판막을 통해서 우심실로 흐릅니다. 심실은 심방보다 더욱 강하게 수축하여 허파동맥을 통해 혈액을 허파로 보냅니다.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혈액은 허파동맥을 통하여 좌심방으로 돌아와 심방의 수축에 의해 좌심실로 흐르면, 심실의 수축에 의해 대동맥을 거쳐 몸의 각 부분으로 흐릅니다.

심방과 심실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하는 것을 박동이라고 합니다. 맥박은 심장의 박동이 동맥에 전해짐으로써 생깁니다. 맥박 수는 심장의 박동수와 같습니다. 1분간 심장의 박동수는 동물에 따라서 다르며, 사람은 남녀 나

이 운동량 정신 상태 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릅니다. 남자 어른이 70년 안팎, 여자는 75년 안팎이고, 어린이는 80~90년, 갓난아이는 120~140년입니다. 첫째, 심장(心)은 오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기로서 혈액(血脈)과 신명(神明)을 주관합니다. 혈액을 주관하여 심(心)이 동력학적 기능으로서 혈액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심(心)이 신명을 주관한다고 할 때의 ‘神明’이란 정신 활동, 의식 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양방(洋方)과는 달리 건망증이나 불면증, 정신 장애 등은 심(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치료합니다. 둘째, 띠, 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心)이 피를 주관하는데 한의학에 선 맑은 피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면 띠가 적게 나오고 띠를 많이 흘리면 피가 허해진다고 합니다. 심(心)은 혀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심(心)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다섯 가지 맛을 다 알 수 있고, 말할 때 발음하는 액은 판막을 통해서 우심실로 흐릅니다. 심실은 심방보다 더욱 강하게 수축하여 허파동맥을 통해 혈액을 허파로 보냅니다.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혈액은 허파동맥을 통하여 좌심방으로 돌아와 심방의 수축에 의해 좌심실로 흐르면, 심실의 수축에 의해 대동맥을 거쳐 몸의 각 부분으로 흐릅니다.

심방과 심실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하는 것을 박동이라고 합니다. 맥박은 심장의 박동이 동맥에 전해짐으로써 생깁니다. 맥박 수는 심장의 박동수와 같습니다. 1분간 심장의 박동수는 동물에 따라서 다르며, 사람은 남녀 나

김주호 기자

현대의 편리한 기계기구의 발명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애환이 서려 있다. 자동차도 그러하고 비행기도 그러하고 컴퓨터도 그러한 내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 하는 방법론이 세상에 공개되어지고 나서는 귀중한 발명들이 그리 놀라지 아니한 대상으로 전락되고 만다. 흔하게 접하기 때문이다.

조희성이란 분은 자기 자신을 이겼던 방법(術己의 方法)을 세상에 공개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서기 1981년도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시작했다. 자기 자신을 이기면 불로불사한다는 엄청난 정보까지 사람들

방법론

에게 알려졌다. 그리하여 승리제단에는 한때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승려도 오고 목사나 신부도 승리제단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극기의 방법에 중점을 두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조희성님을 생미륵불이니 정도령이니 심지어 주님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졸졸 따라 다니기만 했다. 그들은 조희성님을 신격화하면서도 자신의 신체에는 무관심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본인의 몸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다. 그러다가 불로불사를 목매어 외치던

분이 죽었다고 하니가 분신과 변신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성급하게 판단하고 “허탕을 쳤다”고 소리 지르며 바

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승리제단에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고래 왕실줄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소수의 정예원인야 말로 자신의 몸도 불로불사를 이루는 가능성이 100% 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이루는 방



법을 이해한 다음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승리제단에서 나타났던 기사이적도 관심사가 아니었고 고서나 예언서의 글귀를 그리고 유명인사의 간증담도 흥밋거리가 아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한다. 어떻게 하여야 자신이 버려지는지 그 메카니즘(mechanism)에 몰두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확신한

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왜 버려야 하는지 그 기초적 내용조차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구에 경이기가 되어버리겠지만 그 이상의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극기의 방법론이 최고로 소중한 일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마음에 의해 피가 변화를 하고 피가 변화하여

그 몸이 변화를 입는 일련의 과정은 이제 불로불사를 이루는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고 결국 대중적이면서 널리 보편화될 것이다.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사람이 불로불사하는 거요? 그것 당연한 일 아니니까?!”

James Ahn / 승리제단 호주 시드니 지부 책임승사 0415 727 001